

2011 빛고을 아카데미 21일 첫 강좌 -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

# 올 때는 몰랐지만 갈 때에는 바로 알고 감시다

'2011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한권의 책으로 만나는 불교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21일 강연을 시작했다. 행사는 호남지역의 불교활성화와 직장인 및 청년들에게 불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기 작가들을 초청해 책 속에 담긴 불교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우승택의 생테크 날줄 원각경>을 저술한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가 첫 강연자로 나서, <원각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승택 대표는 "베를의 씨줄이 날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원각경>은 인생의 베를 짜는데 꼭 필요한 경전이다"라고 말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 모든 일엔 방법·공식 있다

팔만대장경에는 우주·법계의 이치 등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곳에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인간 세상의 먹고 사는 문제는 베를의 씨줄과 같습니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 예절, 기타 전문지식을 다 공부해야 하듯, 씨줄을 잘 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를의 씨줄은 날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는 베를의 원리이자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날줄을 한자로 표시하면 경(經)이 됩니다. 그 경의 의미는 근간, 표준, 기준 등이 됩니다. 이렇듯 경전의 가르침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법과 공식이 따릅니다.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웬만한 공식과 절차로 풀 수 있습니다. <원각경>은 인생이란 베를 잘 때에 날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각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이 12보살들의 질문입니다. <원각경>은 아난이나 수보리, 사리자 같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살로 화현해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각경>은 <능엄경>과 같이 수행체계에 대해 실한 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마 대사가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행을 한 것인지, 성철 스님이 장좌불와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마진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각이 있습니다. 원각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 번의 번뇌와 망상, 사람과 미움 같은 탐진치라는 오물이 흘러 나옵니다. 사실 진여와 보리, 열반과 바라밀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자체가 폐수에 오염이 되어 있어, 진여 보리



2011 빛고을 아카데미에 참석한 청중들이 예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

열반 바라밀 같은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견어내면 진여 보리 열반 바라밀이 흘러들어 오게 됩니다. 맑은 물은 무엇이든 맑게 비출 수 있어, 세상사의 지혜가 다 드러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 결국 아무것도 없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오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에서 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공의 아는 무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 화합해 일시적으로, 인연의 가함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법공은 법이 공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세계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화합해 생각으로 나타난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상세계, 물질세계, 혹은 기체간 등을 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가 깨서는 "법도 중생들의 마음이라 역시 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한다고 믿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무명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있는 것'이며 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현 보살은 "세존이시여, 마음도 환(幻)이고, 몸도 환(幻)이고, 몸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다 환(幻)인데 어떻게 환으로 수행하라는 말인가요?(世尊, 若彼衆生 知如幻者 身心亦幻 云何以幻 環修於幻)"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으로 환을 닦는 것도, 단지 그 이치만을 알라는 말입니다.

"선남자여, 환인줄 알면 환을 떠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을 떠나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나니라.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이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아야 모든 환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는 <원각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열치열이고 이환치환이니, 허깨비 같은 몸과 마음이지만 그 허깨비 같은 몸과 마음으로 허깨비 같은 수행을 하다보면 나무와 나무를 서로 비비면 결국 아무 것도 없듯이, 그 아무 것도 없는 자리가 원각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무명으로 업을 짓지 말고 원력으로 업을 지어 각자의 업의 그물을 다시 짜고, 법계의 살림살이를 다시 차려 운명을 뛰어넘은 새로운 원력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개조명운 심상사성(改造命運 心想事成)'입니다.

##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보통 계절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곤 합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법계에 두루 가득한 기운이 겨우내 잔뜩 움츠러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생물이 생동하기 때문입니다. 얼음은 온기를 취해 녹으려 하고, 나무는 우주의 기운을 당겨 썩을 듯우고, 잠자던 동물들도 기지개를 켜며 법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사막의 캐러반들이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낙타의 등에 짐을 엮습니다. 주머니 하나, 가마니 하나, 보따리 하나씩 낙타 등에 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어느 한계점에 달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올린 바늘 하나의 무게로 낙타의 등은 절단이 납니다. 이처럼 법의 생동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의 에너지를 근근이 이어가며 사는 노인들에게 약간의 기운을 풀어나 깨어나거나 무나 동물들에게 빼앗겨도 생명을 잃게 되는 한계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풀어게도 가고, 나무에게

## 세상은 환상으로 가득차 있다

환상을 떠나면 그 자리가 깨달음

그릇의 크기따라 얻는 이득 달라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곧 깨달음

도 가고, 사람에게도 가고, 돌에게도 가듯이 우주의 다리니문도 그렇게 골고루 평등 부동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법성계의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입니다.

중생들은 자기의 그릇에 따라 얻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백천까지 우주 법계의 빛이 내게도 오고, 내 자식에게도 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부처님에게 "제가 미워하는 저 놈은 나쁜 놈이니, 저 놈에게는 주시지 말고, 저 놈 때문에 피해 받는 착하고 불쌍한 저에게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미워하는 그 사람의 그릇이 내 것보다 크다면, 나보다 법계의 이



우승택 경제야생테크 대표

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중생의 차별심을 떠나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평등부동의 세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길은 우주의 이치, 법계의 이치, 그리고 다리니의 이치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것, 그것이 <금강경> 사구계에서 말하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고, 그 일체유위법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여기며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관

하십시오. 정법과 사법이 다 각자가 업 놀음 하는 환(幻)의 장난입니다. 사랑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든 인간살이는 단지 한 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그 연극을 실재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비밀비재 일어납니다.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세상과 자신이 온 몸으로 부딪히는 세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예와 이익과 환대를 받고, 아무리 수천만금의 재산을 모았어도 저승에 갈 때에는 눈을 부릅뜨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때는 모르고 와도 갈 때는 알고 갔으면 합니다.

The 26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n Buddhism

## 제2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접수기간 | 2011. 10. 17(월) ~ 10. 20(목)

작품접수처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www.buddhism.or.kr

### ■ 제출방법 및 작품규격

- 공동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표지는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제출방법(변경사항)
- 1) 모든 작품 (설명서 + 실제 작품) : 방문접수
  - 가) 설명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고 표지를 포함(한 면만 사용) 총 2매 이내로 한다.
  - 나) 작품제작 의도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은 둘째 페이지부터 1매 이내로 한다.
- 작품 규격 (※규격을 초과한 작품은 접수 받지 않음)

부문	규격	세부사항	비고
회화	세로227cm×가로181cm (150호) 이내	액자의 경우 외경 크기임	사경(변성도 있는) 판화 가능
조각	높이180cm×폭180cm ×두께120cm이내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	석조인 경우 옥외전시 가능
공예	높이180cm×폭120cm ×두께120cm이내	병풍의 경우 펼쳤을 때 외경 크기임	서각 가능

- 기타사항
  - 1) 작품설명서(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제출서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3) 모든 작품은 작품설명서(2매)와 실제작품을 함께 제출함
  - 4) 작품제출 시 규격을 초과한 작품이나,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 불가함
  - 5) 공동작품일지라도 응모자는 1인으로 명기함

###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2011년 1월 1일 현재)

### ■ 응모원서배부 및 작품접수

- 원서배부기간: 2011년 9월 19일 ~ 10월 20일
- 원서배부처: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다운로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 실제작품 및 작품 설명서 접수:

기간: 2011년 10월 17일 ~ 20일 (4일간)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응모비: 1점당 50,000원(1인 2점까지 응모가능)

### ■ 심사발표:

2011년 10월 25일, 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시상내역 (※최우수상은 상장의외에 해당기관장상을 추가 수여함)

시상내역	작품구분	상장 및 상금	비고
대상	1명	상장, 1,500만원 (작품 중단 귀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최우수상	2명	상장, 5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
우수상	3명	상장, 3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장려상	6명	상장, 10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특선	00명	상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입선	00명	상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 시상식 및 작품전시

- 시상식: 2011년 11월 29일(화)
- 전시일정: 2011년 11월 29일(화) ~ 12월 15일(목)
-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 ■ 문의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TEL: 02-2011-1772, FAX: 02-722-2606  
http://www.buddhism.or.kr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미술협회, 동국불교미술인회, 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TV, 불교방송